

교회 762곳 예배...규정어긴 11곳 시정조치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광주시 방역지침 준수 호소 천주교는 다음주까지 중단...불교·원불교 행사 취소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한 뒤 첫 휴일인 26일 광주에선 일부 개신교회의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등 일상으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등산 등 야외 나들이 명소와 충장로 등 도심 쇼핑가에도 모처럼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민의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돼 지역 사회 집단 감염 우려를 낳기도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개인위생 철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시에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개신교회 1451곳 중 762곳이 현장 예배를 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활절 주간인 지난 12일 521곳, 지난 19일 617곳이 예배를 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이날 현장 예배를 한 교회 중 98.5%인 751곳은 손 소독제 비치, 거리 유지,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교회들은 예배당 내 착석 간격을 멀리 떨어뜨리거나 예배 횡수를 늘려 평소보다 소규모 인원이 모이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다만 출입자 연락처 기재나 종사자 일 2회 발열 확인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11곳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천주교광주대교구는 아직 미사 재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5월 초까지 미사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시행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미사를 재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지역 불교 사찰 114곳도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별하나 집회 중단을 이어갔다. 원불교는 '대각개교절' 기념행사를 이날 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광주시

의 자제 요청을 받고 취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긴 했지만, 지역사회내 집단 감염 우려는 여전하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기침

증상 등 사전 확인, 개인 간격 1m 이상 유지 등을 잘 지키고, 야외 나들이시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신규환자 8일째 10명 안팎

누적 확진자 1만728명 사망 2명 추가 총 242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부터 1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총 1만728명이다. 광주와 전남 누적 확진자는 각각 30명과 15명을 유지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 18명으로

10명대로 준 뒤 19일 8명, 20일 13명, 21일 9명, 22일 11명, 23일 8명, 24일 6명, 25일 10명에 이어 8일간 10명 내외를 기록했다. 신규 환자 10명 중 9명은 해외 유입 사례다. 1명은 검역에서 확인됐고, 1명은 부산, 6명은 경기, 1명은 전북에서 발생했다. 나머지 신규 환자 1명은 지역발생으로 대구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242명이다. 사망자는 전날과 그제께 이틀 간 연속 0명을 기록했지만, 이날 2명이 추가 집계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를 시찰했다고 12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건강이상설' 김정은 어디에

보름째 두문불출...北매체 동정보도 계속 특이동향 없어 중의료진 급파·원산 체류 관측...국내외 언론·SNS 혼란

건강이상설에 휩싸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름째 두문불출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김일성 주석의 108번째 생일(태양절·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도 불참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외 언론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신변에 대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보름째 지취 감춘 최고지도자...북한 매체들은 "평온"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마지막이다. 26일 오전 현재까지 북한 매체 보도도 종합하면 인민군 창건 88주년 기념일(4·25)이었던 전날에도 김 위원장은 별다른 대외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장기 잠행'은 그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3월 두 차례나 열흘 이상 지취를 감춘 바 있고, 2019년과 2014년에도 각각 20일과 40일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억측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조부인 김일성 주석 생일인 지난 15일 집권 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다는 점이 건강이상설에 불씨를 던졌다.

"잠행 15일째"에 접어든 이날 세간의 이목이 김 위원장의 신변에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북한 매체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통상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김일성 훈장 수훈자들에게 생일상 수여(4월 21일), 시리아 대통령에게 답전(4월 22일), 삼지연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4월 26일) 등 각각의 동정은 꾸준히 전하고 있다.

사건·영상의 없는 보도 형태로 김 위원장의 '신이상설'을 불식시킬 수준은 아니지만, 지도체제에 당장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는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심혈관 시술로 종태→중국 대북 의료진 파견까지...각종 소문 무성=김 위원장의 태양절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불참 이후 고개를 든 '건강이상설'은 지난 주말에 즈음해 국내 보수 인터넷 매체에 등장한 '심혈관 시술' 주장을 계기로 일파만파로 번졌다.

비대한 몸집 등으로 평소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온 만큼 비교적 설득력 있게 다가온 측면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미국 CNN이 지난 21일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유사한 주장을 보도하고 국내외 언론이 줄줄이 따라가면서 급기야 금융·외환시장까지 흔들려 놓았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중국 정부의 대북 의료진 급파설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3명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에게 조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의료전문가를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 정부 "특이동향 없음"...원산 체류 관측=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서는 "내부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 2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나 목적이 확인된 바는 없지만,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평양을 떠나 원산 지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5일(현지시간) 상업용 위성사진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찍여 지난 21일 이후 북한 원산의 한 기차역에 정차 중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완화 첫 휴일...시민들 조심스런 봄나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가 완화된 후 첫 주말인 26일 오후 광주호 호수 생태원을 찾은 시민들이 수목이 우거진 길을 산책하며 봄나들이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올 첫 시행...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5~6월 접수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부터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과 밭농업 직불금 등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논이모작)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0.5ha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고소득자, 취미농 등을 배제하기 위해 법률상 규정된 면적과 농의소득, 농촌거주기간 등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면적 구간에 대해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을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인 400ha

다. 실제로 2ha 이하의 진흥지역 논·밭은 205만원을 지급하며, 비진흥지역 논은 178만원, 밭은 134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 밭, 조경불리직불금 대상농지로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다. 농지 전용과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밭, 조경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이며,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농업인 주업으로 하고 있다는 증명여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직불금을 받으려면 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

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는 등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처벌도 강화한다. 거짓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되고 최대 5년간 등록을 제한하며, 직불금 부정 수령 시에는 최대 8년까지 등록이 제한된다. 광충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제로 개편·시행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신청·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대상자는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별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0년 3월 1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0년 3월 18일 해산통고를 완료한바 당사에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부 2개월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회사명 : 주식회사 해담에너지
주 소 : 광주광역시 하남지실길 72(산정동)
청산인 : 위 정 호(광주광역시 북구 대청로 195, 105동 301호(문흥동, 현대아파트))

산행안내

5월2일(토)
▲ 광주금당산악회 5월2일(토) 여수 천혜의섬 연도 소리로 동백꽃 광복산 트레킹. 봉선동 롯데슈퍼앞 08: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8:20. 열주체육관 정문 08:30. 한국병원앞 08:40. 문예회관 정문 육교앞 08: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4: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농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